

## 지 수 (가제)

### #1. 어느 숲속 / 새벽 (꿈, 흑백)

화면, 정적인 흑백. 낮고 일정한 톤의 기괴한 바람 소리가 조용하게 깔린다.  
큰 나무의 굵은 가지들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 느릿한 박자로 좌우로 기울어졌다 돌아온다.  
가지 끝에 매달린 나뭇잎들이 미세하게 떨린다.

### #2. 지수 집 / 아침

땡- 땡- 반지하 창문 너머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린다.  
잠에서 깨어나는 지수 (여, 30대)  
몸을 일으키지 않고 멍하니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뿌연 햇빛을 바라보고 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린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오는 지수.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통을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곧바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온다.  
거울도 보지 않고 스킨 로션을 대충 얼굴에 두드려 바른다.  
안약을 고개를 뒤로 꺾은 채 눈에 넣자, 눈가로 안약이 흘러내린다. 눈을 빠르게 깜빡인다.  
햇빛이 내리쬐는 창문 앞 테이블에 앉는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시나리오 원고들로 가득하다.  
옆에 놓인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운다. 담배 연기가 길게 퍼진다.  
창문 너머 창살 밖에 놓인 작은 토기 화분. 그 안에 심긴 조그만 선인장이 보인다.  
지수는 테이블 위 작은 컵을 내려다본다. 컵 바닥에 찰랑거리며 조금 남은 물.  
지수는 물에 손가락을 담가 적신 뒤, 창살 틈으로 손을 뺀어 선인장 위로 물방울을 푹 푹 떨어뜨린다.

### #3. 현관문 / 오후

‘땡땡’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선글라스를 쓴 채 현관문으로 나가는 지수. 문을 열자 교복을 입은 중학생 두 명이 서 있다.

학 생1       안녕하세요. 책 당근 거래하려고 왔는데요.

지 수         ...(끄덕)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가서 테이블 위에 있던 책 한 권을 가져와 학생에게 전달한다.

학 생1        칠천원 맞죠?

지 수        (끄덕)

학 생1        여기 칠천..

순간, 옆에 있던 학생2가 학생1의 손을 막으며 말한다.

학 생2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 학생이라서..

지 수        ...

학 생2        오천 원에 안 될까요? 오천 원에 해주세요.

선글라스 너머로 학생들을 가만히 바라보던 지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어 오천 원을 받는다. 학생들은 인사를 하며 현관문을 닫는다.

구겨진 오천원 지폐를 테이블 위에 있는 담뱃갑 사이에 둔다.

#### #4. 지수 집 / 오후

화면, 지수 집 창문을 비춘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지 않고 울린다.

테이블 위에서 잠든 지수. 옆드린 채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어 전화를 받는다.

엄 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받아.

지 수        ....

엄 마        ...밥은

지 수        ...

엄 마        안약은 잘 넣고 있지? 재수술 했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

조금만 관리 못 해도 시력 떨어져.

지 수        ...

엄 마        글은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한숨쉬며) 다음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 수연이 결혼 한다더라.

친척들한테 인사한다고 다 같이 보재. 오랜만에 얼굴 좀 비춰.

지 수        ...

엄 마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거야?

말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끊어버리는 지수.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팔에 고개를 묻고 옆드려 잠든다.

## #5. 지수 집 / 늦은 오후

고요한 방 안. 창가 쪽에서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놀란 지수는 잠에서 깨어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본다. 선글라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창문 밖에 산산조각나 깨진 토기 화분과 작은 선인장이 보인다.  
창살 너머로 고무공을 들고 사탕을 물고있는 아이가 보인다.  
지수, 바닥에 떨어진 선글라스는 놔둔 채 테이블 위에 있는 담배를 꺼내 피운다.  
아이는 구부려 앉아 지수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본다. 지수와 아이 눈이 마주친다.  
지수를 유심히 바라보던 아이, 입에 물고 있던 막대사탕을 손가락으로 담배처럼 고쳐 쥐더니 지수의 몸  
짓을 그대로 흉내 낸다. 사탕을 입에 물었다 떼며 연기를 내뿜는 시늉을 하는 아이.  
순간, 반지하 창문 위 보도블록으로 어른 하체가 보인다.  
슬리퍼를 신은 아이 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끈다.  
아이의 손에서 막대사탕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아이엄마(V.O)        아들! 여기서 공놀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화분 깨진 거 봐.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어휴, 빨리 가자.

아이를 데리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아이 엄마.  
멀어지면서 손짓으로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는 아이.  
지수, 선글라스가 벗겨진 맨눈으로 무표정하게 담배 연기를 뿜으며 멀어지는 아이를 바라본다.  
바닥에는 주인을 잃은 사탕과 선인장이 보인다.

## #6. 지수 집 / 저녁

어두컴컴한 방 안. 노트북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빛만이 선글라스를 낀 지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지수는 가만히 앉아 깜빡이는 화면만 노려보고 있다.  
키보드 위에 올라간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다.  
글이 막힌 듯, 지수는 선글라스를 벗고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빛번짐이 심한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눈을 감는다.  
테이블 위에 있던 안약을 눈에 넣는 지수. 안약이 뺨을 타고 흐른다.  
창문 너머로는 차 지나가는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들린다.  
반지하 방 안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 같다.  
지수는 낮에 담뱃갑 사이에 끼워둔 구겨진 오천 원짜리 지폐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본다.  
노트북을 닫아버리는 지수, 방 안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인다.

### #7. 어느 숲속 / 새벽 (꿈, 흑백)

화면, 정적인 흑백. 1씬의 그 낮고 기괴한 바람 소리가 나직하게 사방을 채운다.  
거대한 나무의 굵은 가지들이 바람을 따라 느릿한 박자로 좌우로 기울어졌다 돌아온다.  
고요한 숲 한가운데 한 여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자의 정확한 이목구비는 보이지 않는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얼굴 위로 아주 미세하고 열은 미소 같은 잔상이 조용하게 번져간다.  
낮고 기괴하던 바람 소리와 함께 화면이 푹 끊긴다.

### #8. 지수 집 / 아침

뺑- 뺑- 어제와 다른없는 자동차 경적 소리.  
지수, 눈을 뜬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온다.  
냉장고에서 꺼낸 생수통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화장실로 가 물을 끼얹는다.  
거울도 보지 않은 채 스킨로션을 얼굴에 대충 두드려 바른다.  
고개를 꺾어 안약을 넣는다. 뺨으로 흘러내리는 안약.  
  
어제와 똑같은 동선으로 창문 앞 테이블에 앉는다.  
익숙하게 검은색 선글라스를 집어 쓰며 창밖을 바라본다.  
창살 밖, 늘 있던 자리가 허전하다.  
시선을 내리는 지수. 반지하 창문 아래 시멘트 바닥 위로 작은 토기 화분이 산산조각 나 있다.  
어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었던 선인장이 흙더미 속에 덩그러니 있다.  
지수, 선글라스 너머 무표정한 얼굴로 깨진 화분과 막대사탕을 바라본다.

### #9. 지수 집 앞 골목길 / 오후

검은 선글라스를 바짝 고쳐 쓴 지수가 반지하 현관문을 나선다.  
햇빛이 비치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  
지수는 빛번짐으로 시린 눈을 보호하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동네 꽃집이 있는 방향으로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수의 걸음이 멈춘다.  
저만치 골목 한편, 고요한 빌라 벽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음악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길바닥에서 그 사람은 오직 자신만의 기이한 박자에 맞춰 기묘한  
춤을 추고 있다. 관절을 푹푹 꺾다가도 이내 허공을 향해 손을 부드럽게 뻗는, 정적이고 격렬한 스텝.

행인들은 그를 확확 지나치지만 지수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 움직임을 응시한다.  
지수는 선글라스를 슬쩍 밀어 올리며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발걸음을 옮긴다.

#### #10. 동네 꽃집 / 오후

딸랑- 낡은 종소리. 선글라스를 쓴 지수가 꽃집 안으로 들어선다.  
지수는 구석에 놓인 손바닥만 한 작은 토기 화분을 발견한다.  
그 안에 심긴 미니 선인장.  
어제 자신의 창틀에 놓여 있던 것과 크기도 모양도 비슷하다.  
지수는 돈을 지불하고 새로 산 선인장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고 꽃집을 나선다.

#### #11. 돌아오는 골목길 / 늦은 오후

새 선인장 화분을 들고 집으로 걸어오는 지수.  
해가 더 높이 떠올라 골목길에 햇빛이 환하게 비치다.  
선글라스를 썼음에도 빛번짐 때문에 지수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진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수는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선다.  
  
아까 그 여자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다.  
여자는 아까와 같이 기묘한 몸짓으로 소리 없이 춤을 이어가고 있다.  
지수의 시야가 심하게 흔들린다.  
선글라스 너머로 들어오는 짙은 햇빛과 눈의 통증.  
음악도 없이 춤추는 여자의 기괴한 실루엣이 뒤엉켜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자의 어렴풋한 얼굴 위로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열은 미소의 잔상이 겹쳐 보이는 듯하다.  
지수는 춤추는 여자를 피해 반지하 집으로 향한다.

#### #12. 지수 집 / 저녁

방 안으로 들어오는 지수. 현관문이 조용히 닫힌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깨진 채 널브러져 있는 어제의 화분 파편과 흙더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지수는 그것들을 치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지수는 새로 사 온 선인장 화분을 들고 창가 테이블로 향한다.  
창살 밖, 어제 그 선인장이 있던 자리에 정확하게 새 화분을 올려놓는다.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지수. 창살 밖의 새 선인장을 가만히 응시한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화분.

지수는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린다.  
빛번짐으로 인해 미간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 안약 통을 집어 든다.  
고개를 뒤로 꺾고 맨눈에 안약을 떨어뜨린다.  
지수, 눈을 빠르게 깜빡인다.

지수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타닥 타닥 타다닥...  
고요한 저녁의 방 안에 자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창밖을 비추는 화면.  
새로 놓인 선인장 화분 옆, 아직 치우지 않은 어제 아이의 먼지 묻은 막대사탕이 텅그러니 놓여 있다.  
창문 너머로 이미 켜져 있던 가로등 불빛이 창가로 비추고 있다.  
그 불빛 아래 춤을 추고 있는 여자의 기묘한 그림자가 보인다.

순간, 화면 암전.

정적 속에 지수의 규칙적인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한동안 이어진다.